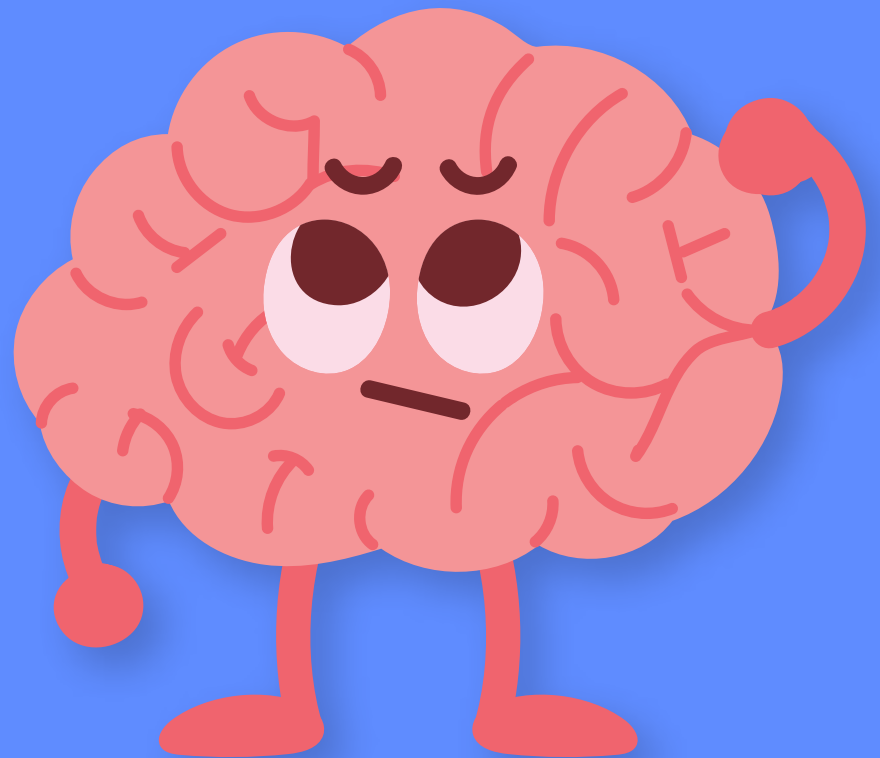


뇌졸중 환자 치매에 잘 걸리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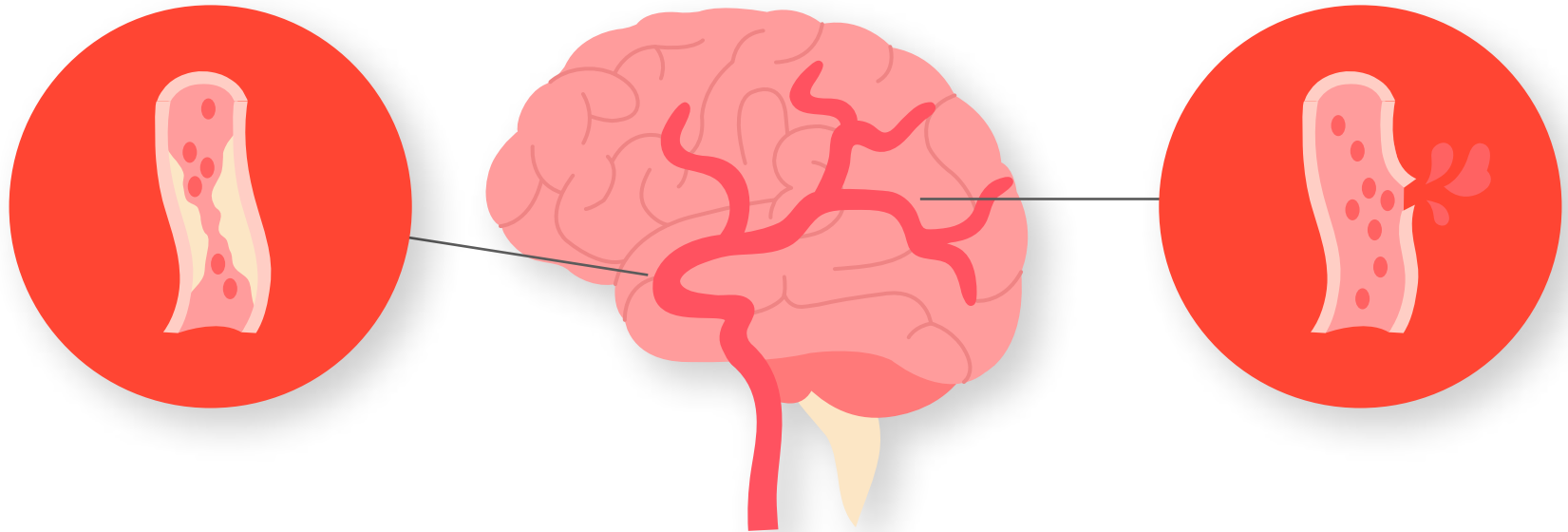
weknew

x



대한뇌졸중학회
Korean Stroke Society

“뇌졸중 걸리면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이 커요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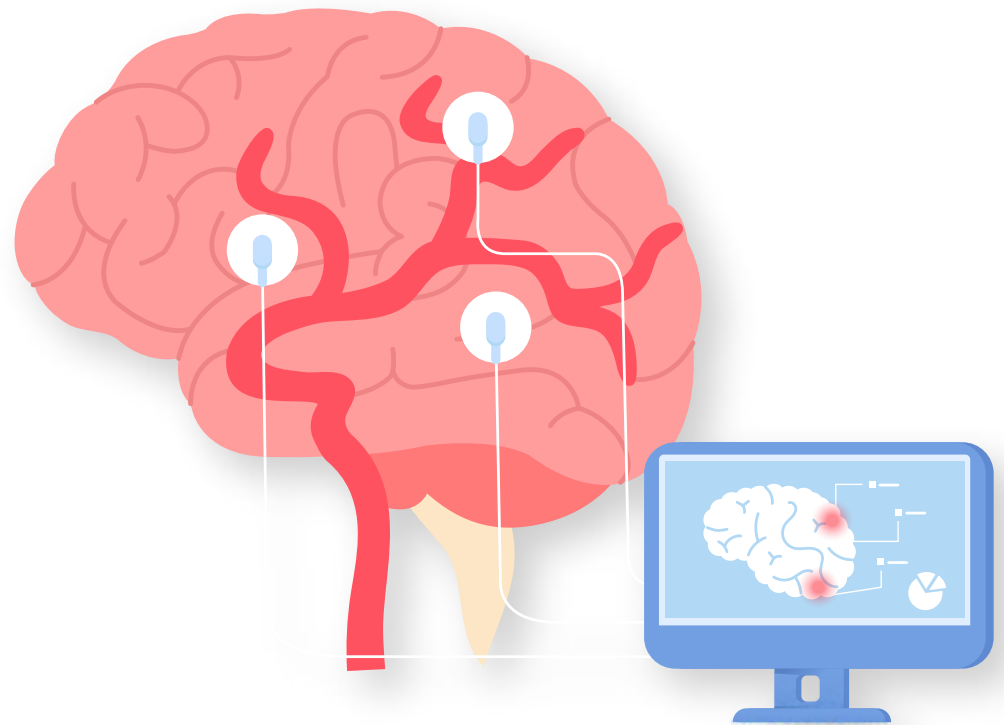


전체 치매 환자의 10%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
뇌졸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.

뇌졸중이 발생한 지 1년 후 10% 이내, 5년 후 30% 이상
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

치매 위험 높이는 뇌졸중 증세

- 뇌경색이 여러 번 발생함
- 뇌졸중 증상과 장애가 심각함
- 뇌의 인지기능 관련 부위에 뇌졸중이 생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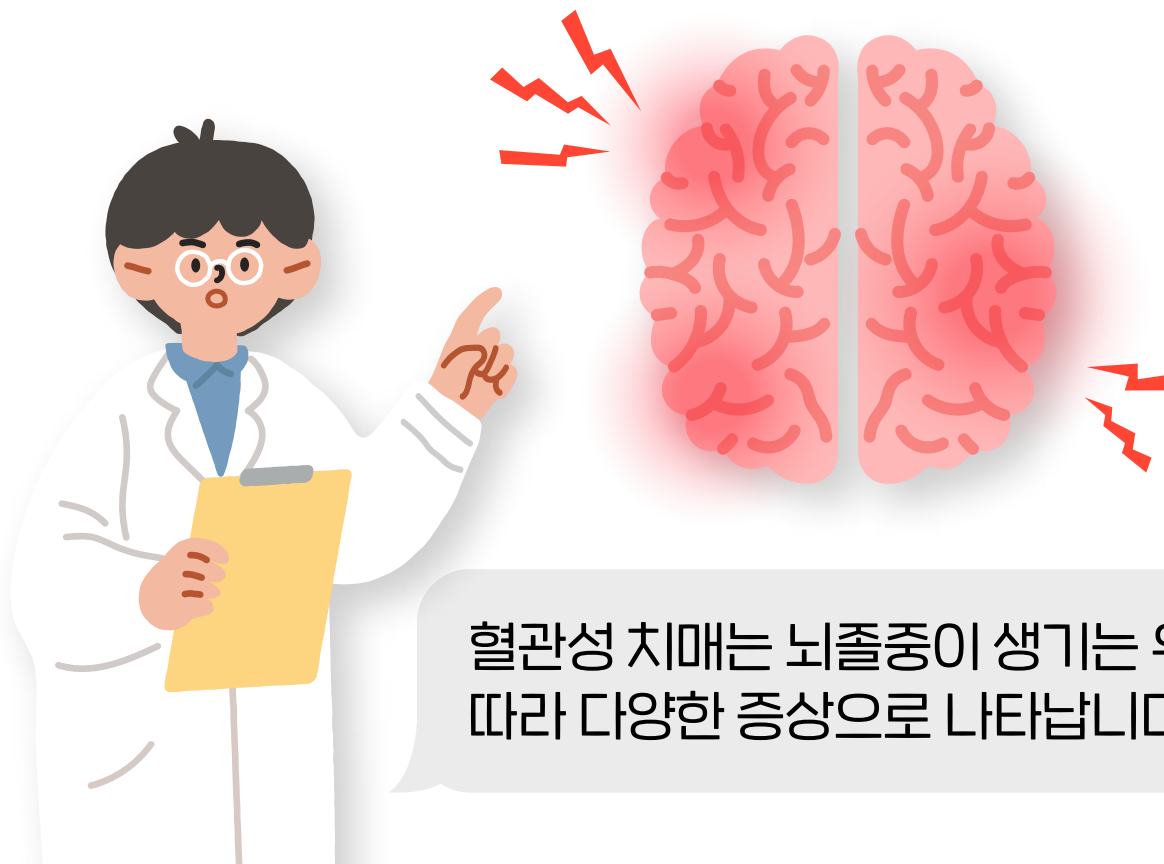
혈관성 치매 증상

인지기능이 떨어짐

기억력 감퇴, 언어 능력 저하,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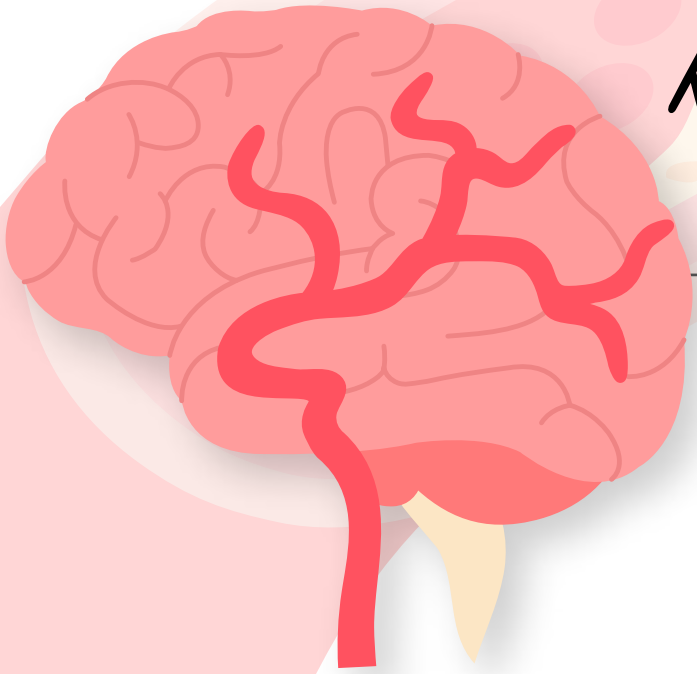
정신행동이상

이리저리 돌아다니기, 무감동, 우울, 불안, 망상, 환각



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.

“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로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”



혈관성 치매는 **주의 집중력**이나 **언어 기능** 등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초기에는 **성격 변화**가 나타나기도 해요.

뇌졸중 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 가기

뇌졸중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가능한 한 즉시 병원에 가서 골든타임 안에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

뇌졸중 위험 요소를 막자

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려면 **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관리**해야 합니다.

뇌졸중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소는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, 심방세동¹⁾, 흡연, 금주 등이 있습니다.



1) 심방에서 발생하는 빠른맥의 형태로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.



소중한 사람들에게
올바른 건강 정보를
공유하세요



weknew